

- **주요 뉴스:** 미국 제조업 및 고용 지표, 전월비 부진 향후 경제활동 둔화 가능성을 시사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 독일 6월 소매매출, 1994년 이후 최대폭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영향
 -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예상치 하회. 생산 부문 부진 등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제조업 활동 둔화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0.3%],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기불안 및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이 원인
 유로 Stoxx600지수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우려 등으로 0.2%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부진한 7월 제조업 지표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4%, 1.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완화된다는 시각 등이 반영
 독일은 역내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08.7원, +4.7원) 0.4% 상승, 한국 CDS 상승

		8/1일	7/29일	전일대비			8/1일	7/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118.6	4,130.3	-0.28%	국채 금리 10y	미국	2.57%	2.65%	-8bp
	유럽	437.46	438.29	-0.19%		독일	0.78%	0.82%	-4bp
	중국	3,260.0	3,253.2	0.21%	CDS 5y	한국	44bp	40bp	4bp
	일본	27,993	27,802	0.69%		중국	84bp	72bp	12bp
	한국	2,452.3	2,451.5	0.03%	위험 지표	EMBI+	-	443	-
환율	달러지수	105.39	105.90	-0.48%		VIX	22.84	21.33	7.08%
	유로화	1.0262	1.0220	0.41%		WTI유	93.89	98.62	-4.80%
	엔화	131.61	133.27	1.26%	원자재	구리	354.3	357.4	-0.87%
	위안화	6.7688	6.7445	-0.36%		금	1,772.2	1,765.9	0.35%
	원화	1,304.0	1,299.1	-0.3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제조업 및 고용 지표, 전월비 부진. 향후 경제활동 둔화 가능성을 시사

- 7월 ISM 제조업 PMI는 52.8로 예상치(52) 상회했으나 전월(53) 대비 하락. 재고 증가로 투입물가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 한편 고용은 감소했으나 해고 등의 징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 이번 결과는 경제가 아직 침체국면이 아님을 의미. 그러나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등이 전월 대비 감소. 이에 Barclays의 Pooja Sriram은 연말로 갈수록 경착륙 위험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예상을 고려한다면 여러 제조업 지표들 역시 향후 상당 폭의 하락을 기록할 수 있다고 언급
- 한편 노동시장 분석업체 Homebase가 10만개 기업에 속한 200만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7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지난 3개월 평균 대비 12% 줄어든 것으로 확인. 또한 응답자의 80%는 향후 경기침체에 대해서 우려
- 이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음을 제시. 다만 기업주들의 대부분은 향후 경기하강이 예상되지만, 이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해고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대답
- 6월 건설지출 역시 전월비 1.1% 감소. 이는 모기지금리 급등에 따른 주택매입 능력 약화 등에 기인. 주택건설이 전월비 1.6% 줄었으며, 특히 단독주택 건설의 경우 전월비 3.1% 급감. 유정 개발 등 비주택건설 역시 전월비 0.5% 감소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BofA, 미국 10년물 금리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2%까지 하락할 가능성

- Bruno Biais 금리전략책임자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해도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이 지속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6~12개월 사이에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한편 정책금리는 '24년 1/4분기에 중립금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골드만삭스, 미국 2/4분기 기업실적은 당초 우려한 것보다 양호

- David Kostin 스트래티지스트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들 가운데 56%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언. 다만 이는 지난 5개 분기의 평균 62%를 하회했으며, 이에 주가 하락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 튀르키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옥수수를 실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화물선이 레바논으로 항할 예정이라고 발표. 다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금년 곡물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발언

■ 독일 6월 소매매출, 1994년 이후 최대폭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영향

- 해당 매출은 전년동월비 8.8% 줄어 전월(1.1%) 대비 큰 폭 줄었는데, 이는 거의 30년 만에 최대. 특히 제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식료품 부문이 부진. 또한 러-우 전쟁 및 코로나 팬데믹 여파 등도 원인으로 작용

■ 러시아, 노드 스트림1 수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

-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긴급 수리가 필요하지만, 서방 세계의 제재에 따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 이번 발언은 러시아가 제기한 노드 스트림1의 터빈 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신호로 해석

■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예상치 하회. 생산 부문 부진 등에 기인

- 해당 지수는 50.4를 나타내 전월치(51.7) 및 예상치(51.6) 대비 모두 낮은 수준. 이번 결과는 생산활동 둔화와 부동산 부문 우려, 고용 감소 등이 반영. Hwabao Trust의 Nie Wen은 스테그네이션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 한편 7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년동월비 39.7% 급감한 5231억위안을 기록. 부동산정보기업 CRIC는 전반적인 수요 및 잠재적인 주택구매 능력이 약화되었으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고 지적

■ 중국 인민은행, 부동산 부문에 대한 안정적 대출을 약속

- 부동산 부문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을 강화하여 경제회복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또한 채권 발행 및 대출 수단을 확대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도 마련하겠다고 강조. 이번 발표는 최근 제조업 지표의 부진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시카고 연은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강연, 호주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 정부에 경제적·정치적 편익 제공 - Financial Times**
(Biden's surprise win will bring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benefits)
 -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를 둘러싼 암울한 여건이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획득. 이를 토대로 노동자 교육, 기초과학 연구, 지역 제조업 시설 지원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
 - 또한 고성능 반도체의 92%가 대만에서 공급되는 등 반도체 공급 관련 특정 지역의 과도한 편중 역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한걸음 더 전진했다는 사실도 상당한 의미를 내포
- **미국 투자자들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저해 - 블룸버그**
(Wishful Thinking Won't Help the Fed Beat Inflation)
 -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제시. 그러나 노동수급 불균형 등으로 민간부문의 높은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 내에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 이에 연준 역시 기존의 통화긴축 경로에 큰 변화를 부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증시, 채권시장 등에서 투자를 크게 늘릴 소지.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물경제 부문까지 영향을 미쳐, 연준의 의도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고물가 시대 이후 미국 경제, 상당 기간 저성장 국면 지속될 가능성 - 블룸버그**
(You Won't Like What Comes After Inflation)
- **미국에서 검토 중인 인플레이션 감소법, 실제 효과 여부는 불확실 - WSJ**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on't Reduce Inflation)
- **부채위기 신흥국, 경제 안정 위해 예산 관련 투명성 제고할 필요 - Financial Times**
(Sri Lanka's cris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udget transparency)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